

# 세네갈 선교 소식



안녕하세요 기도 동역자 여러분

2024 년을 여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세네갈에서 이루어가시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 하시는 세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곳에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은 우리에게 딱 맞는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평안에 머물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드리고 주님의 신실 하심 앞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너무도 부끄럽다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 사역소식

### 신학교 사역

이슬람 98% 기독교 2% 가 되는 이 무슬림들로 가득 차있는 세네갈에서 현지교회를 돕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재 훈련을 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더 큰 바람은 저희 신학교가 연합신학교로 더 확장되어 발전하고, 이 땅에 정식 신학교로 등록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월 22 일~26 일까지 기독교 윤리 (김형균 케냐 선교사, 브릿지 월드 인터내셔널 신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24 명의 재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 은혜가운데 2024 년의 신학교 사역을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토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가정의 형태가 파괴되어 있는 무슬림 문화가 많은 이곳에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부부관계, 자녀 관계를 강의 듣고 토론할 때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정의 문화와 전통들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통해 각 마을마다 다시 새롭게 세워 질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Holy Trinity Missionary Baptist Church 교회 담임이신 Dr. Richad Jewel Rose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해석학 강의를 있었습니다. 올 해 연세가 78 세이신 교수님이 지난번 해석학 강의 때 이곳에 필요한 신학 책들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시고 커다란 캐리어 가방 안에 학생들을 위한 책으로 가득 채워서 오신 것을 보고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1까지는 구약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윤영 교수님이 한 주간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학금 7,300\$을 보내주셔서 재학생들 가운데 목사 12명에게 한 분 당 500\$, 전도사님 13분들에게 한 분 당 100\$의 장학금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항상 조심스럽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인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종하신 일이라 모든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교회개척사역 (부반마을과 생고르마을)

저희 신학교에 재학중인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2주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명희 선교사와 사무엘과 반 친구들 12명이 인형극을 준비해서 성탄축하 공연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인형극을 함께 공연한 시리아 친구 덴젤과 니제르 친구 조쉬아가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후 마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음에 또 방문할 것을 약속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며 부모가 맡겨진 구간만 잘 경주하면 다음 세대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잘 달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님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고르 교회는 어린이들이 35 명이 모여 예배 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무슬림들이라 어른들은 7 명이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모이스 목사는 신학교에서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적인 분인데 사역에 생명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좁은 목사님 집 방 한 칸(2~3 평)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더 넓은 예배 장소가 시급하며 이 마을에 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강의를 위해 오신 이윤영교수님도 함께 부반마을과 생고르 마을을 방문하셔서 시골 마을들을 돌아보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스만과 생고르 교회의 모이스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학생인 가스파 목사님의 봉가리 마을에 교회공동체를 세웠고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감리교단 성도들이 모은 100 만 세파(한화 약 200 만원)의 현금으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스파 목사님이 계속 신학교에서 잘 훈련 받고 봉가리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필요한 동역자들과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경 사역

정명희선교사는 지난 2022년에 온라인으로 1년동안 전문 강사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하여 여성경이 읽어지네(성경일독학교)가 구약방(12주)과 신약방(12주)을 세네갈 3기까지 마치고 지금 4번째 구약방을 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MK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성경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학교에서도 과정을 만들어 재학생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에 기독교 윤리 강의를 위해 오신 김형균교수님은 미국 시카고 헬로우쉽 교회를 25년 담임하시고 은퇴 후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여성경의 대표이신 이애실 사모님과 각별한 사이시라 불어권에 여성경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바램으로 정명희 선교사와 이애실 사모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프랑수어로는 교재나 PPT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조금씩 강의안만 번역하며 언젠가 본부에 요청해서 불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경이 잘 준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건물 사용 문제

그동안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건물 사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의 대리인이 터무니 없이 뒤통을 계속 요구하며 주인에게는 계약위반 사항을(교회와, 학교로 사용)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통의 액수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벌써 4번째 이사한 곳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어느 건물 주인이나 같은 문제가 발생할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 사용 문제를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부아프리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사역과 MK 사역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넓은 거실은 강의실과 예배실로 사용하고 3개의 방은 교수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서부아프리카의 중심인 나라이고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 나라여서 말리,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베냉, 기니비사우등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기숙사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의가 없는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 아이들이 모여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면서 선교 안식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의 문제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건물을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곳이 서부아프리카의 유일한 센터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정리하면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게 될 것 같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사역과 MK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곳에 센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소식

저희는 가족 모두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 특히 정명희 선교사는 갑상선 문제로 몇 개월 고생했지만 지금은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희들과 함께 지방 현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시골마을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마을 교회 페인트도 칠해주고 마을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세네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리더로 잘 훈련되어지도록
2. 시골 마을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부반마을, 랑겜마을과 봉가리마을, 티에스 감리교회, 음부르 감리교회, 은자스교회, 간자이교회, 생고르교회) 특히 생고르 교회 (모이스 담임목사)에 예배할 장소가 마련(교회건축)되고 봉가리 마을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3. 건물 사용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4. 어성경 사역이 잘 준비되어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5.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세네갈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사무엘이 6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